

포구에 올리는 《바다 만풍가》

수산물생산에서 련일 혁신
옹진해안수산물사업소에서

옹진해안수산물사업소에서 수산물생산을 늘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하여서는 수산업을 더욱 발전시켜야 합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사업소일군들은 이미 마련된 생산토대를 리용하여 높이 세운 올해 바다나물과 물고기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 짜고들고있다.

온 사업소가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수산물을 먹이시려고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드세찬 생산돌격전을 벌리고있다.

그 앞장에 양식작업반이 섰다.이곳 양식공들은 어장과 시설물정리,모내기와 모보식 등 다시마생산을 늘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생산에 들어가 성과를 계속 올리고있다.다시마성장에 따르는 일생산량을 정확히 조사하고 숙생생산을 따라세움으로써 1.4분기계획을 110%로 넘쳐 수행한 이들은 기세를 늦추지 않고 4월에 이어 5월에도 줄기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혁신의 불길은 어로공들속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출어일수를 보장하는데서 배수리가 가지는 의의를 명심하고있는 어로작업반의 선장들인 김종일,리근찬동무들은 철판을 비롯한 수리자재를 자체로 마련하고 사업소기술 일군들과 합심하여 배수리와 각종 어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었다.예견되는 날씨와 어장상태를 타산하여 적기에 출어를 보장한 어로공들은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임으로써 5월 물고기잡이계획을 넘쳐 수행할 확신에 넘쳐있다.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이곳 어로공들은 부단히 어장을 순회하면서 바다물흐름상태와 물고기 특성에 따르는 여러가지 물고기잡이방법을 널리 적용하여 생산성과를 더욱 높이고있다.사업소에서는 여러가지 물고기잡이방법이 은이 나게 하기 위해 고기배와 어구의 현대화에 힘을 넣고있다.

또한 사업소에서는 조개잡이에도 박차를 가하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리승철

